

“섬진강변 토닥토닥 걸으며 봄기운 만끽하세요”

곡성군, 2가지 코스 걷기 행사 오는 21일 개최 철쭉꽃길·자전거길 등 여유로운 시간 즐기기

“섬진강변 걸으며 봄 기운 만끽하세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토닥토닥 걷기 행사가 봄 기운이 가득한 곡성 섬진강변에서 21일 열린다.

토닥토닥 걷기는 지역의 숨겨진 길을 찾아 함께 걸으면서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자는 뜻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5차례 걸으면서 하루하루를 빈틈없이 짝 채우며 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풍 같은 여유와 위로를 주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행사는 매회 다른 주제로 코스를 진행해 오고 있다.

16회째를 맞는 이번 토닥토닥 걷기는 섬진강변을 걸을 예정으로 ‘붉은 봄은 곡성

인가봄’이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코스의 특징은 6가지의 길이 오션 지처럼 중첩해 이어진다는 것이다. 섬진강을 따라 물길과 철쭉꽃길, 사람길과 자전거길, 자동차길, 기차길이 나란히 흐르는 정취가 이채롭다.

특히 이번 토닥토닥 걷기에서는 체력이나 개인적인 흥미에 따라 2가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번째 코스는 침곡역(집결) → 송정마을(포토존) → 섬진강 자전거길 → 침곡역(종점)의 7.2km 구간으로 산보하듯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하다.

두번째 코스는 침곡역(집결) → 송정마을(포토존) → 가정역 → 출렁다리 ← 두



21일 '제16회 토닥토닥 걷기' 행사가 펼쳐지는 곡성 섬진강변 철쭉꽃길. <곡성군 제공>

곡교 → 섬진강 자전거길 → 침곡역(종점)의 11km 구간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번 토닥토닥 걷기에 참여하려면 21일 오전 8시 20분까지 집결지(오곡면 침곡리 침곡역)로 모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미래혁신과(061-360-87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ijim@

구례군, '지리산남악제' 18일 개막 화엄사 시설지구 일원... '군민의날' 행사도 개최

구례군이 18일부터 사흘간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남악제, 화엄사 시설지구 일원에서 '제75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38회 군민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총 4마당 32종목으로 남악제와 제례행렬, 군민의날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 전시·체험, 경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첫째 날인 18일은 전국장기시조경향대회를 시작으로 백두한라예술단의 공연이 섬진아트홀에서 열리며 저녁에는 군민의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 노래자랑이 열린다.

다음 날인 19일엔 구례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날 행사가 열린다. 읍·면별 특

색 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기념식, 군민의날 상 시상과 함께 각 읍면 대표 선수들이 각종 체육 경기를 펼치는 군민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에는 화엄사 시설지구 주차장에서 남악제까지 남악제행렬이 펼쳐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어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해온 국태민안과 사회연풍을 기원하는 남악제가 남악사에서 봉행된다.

이 밖에도 우리자 시음회와 전통 떡 만들기, 기념품 만들기 체험, 한궁 시연 경기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한지공예전시, 한국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등 부대행사로 펼쳐진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전남 1호 민간정원 '속섬' 봄꽃 향연. 전남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고흥군 봉래면 '속섬'에 형형색색 만발한 꽃들이 봄의 향연을 연출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주문 책자 2주면 받아보는 '바로콜희망도서' 서비스 확대

고흥군이 '희망도서, 바로CALL이용자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를 확대 개설했다.

군은 도서관에 없거나 신청을 하면, 2주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립도서관에 구비되지 않는 책의 경우 기존에는 희망도서 신청 후 실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기간이 한 달까지

걸렸으나 4월부터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일 안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신청 가능한 도서는 도서관에 비치할 수 없는 일부 도서를 제외한 문학, 예술, 기술 과학 등 모든 분야의 책들이며, 매월 1인 최대 3권까지 가능하다.

'희망도서 바로CALL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군민들은 고흥군립도서관 홈페이지

(www.ghlib.go.kr)에 접속해 '희망도서'를 신청하거나 군립중앙도서관(고흥읍, 061-830-6955-6956), 군립남부도서관(도양읍, 061-830-6906), 군립북부도서관(동강면, 061-830-5951)으로 전화 및 방문신청 후 대출가능 문자 안내를 받고 도서관에 방문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곡성군, 책자 1000부 배부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지방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사진) 1000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책자는 올해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해 11개 세목에 대한 설명,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지방세 정보들을 담고 있다.

특히 법인과 개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구분해 각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책자를 통해 군민들께서 복잡한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ijim@



전남문인협회 문학기행에 참여한 문인들이 보성 서재필기념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문인협회 보성서 문학기행 행사

회원 100여명 서재필기념관·한국차박물관 등 둘러봐

전남문인협회가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보성 일대를 돌아보는 문학기행 행사를 가졌다.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일환으로 전남도와 보성군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회원 100여명이 참여, 보성의 명승지에 이름을 붙여주고 관광지에 새 가치를 부여하는 창작의 시간을 가졌다.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는 티벳 불교에 대해, 서재필기념관에서는 보성군 문덕면 외가에서 태어난 서재필의 생애에 대해 배웠다.

봉강사에서는 적멸보궁과 지장전 등을 중창해 호남 3갑을 이루는 호국 불교에 대해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다원의 경이로운 차밭과 보성의 랜드마크인 봇재를 둘러본 후 한국차박

물관에서 보성과 세계의 차를 배우고 발효차와 녹차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성청소년수련원에서는 일봉 이교문 선생의 생애와 차시 절다,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어 보성 판소리 성지와 정해룡 생가, 마천목 샘, 전남 민간정원 제3호인 초암정원, 비봉공룡박물관을 거쳐 나철 기념관과 생가를 방문했다.

김용국 전남문인협회 회장은 "이번 문학기행은 3·1운동 100주년, 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전남도와 보성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성군과 지역내 관광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